전북자치도, 재난안전 비상 1단계 가동

도내 전 지역 폭염 특보 발효… 비상 대응체제 가동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 ·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7월 24일자로 폭염 대응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은 지난 21일부터 폭염특보가 지속되며,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를 오르내리며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7월 23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110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되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한 상황이다.

가축 폐사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총 17만 1,590두수로, 돼지 5,486, 닭 15만1,071, 오리 1만5,033 두수 등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폭염 대응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협업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폭염 비상대응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홀몸노인·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및 전화 상담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도 운영하여 폭염 속 휴식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5,771개소는 적정 실내온도(26~28℃) 유지 등을 통해 상시 개방·운영 중이며, 스마트 그늘막과 스마트 승강장 등 폭염 저감시설 1,682개소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양산 대여 서비스와 주요 위치에 얼음 생수를 보관한 '양심 냉장고'도 함께 운영 중이다.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전광판, 마을방송,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폭염 특보 시 기상청과 협력하여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해 폭염 정보를 전파하고 있다.

축산·농업 분야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가축 관리 요령 안내 및 폭염 취약 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장소 머무르기 등 기본 폭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일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양계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폭염 피해 최소화 위해 양계농가 현장 점검

정읍 육계농가 찾아… 쿨링패드 · 환기시스템 등 폭염 대응 시설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일 정읍시 북면에 위치한 양계농가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쿨링패드, 환기시스템 등 폭염 대응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양계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도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도내 가축 피해는 총 17만1,000마리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오리 16만 6천 마리, 돼지 5,486두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가축 사육환경 개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을 포함한 폭염 피해 예방사업에 총 164억 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도는 예비비 16억 원을 긴급 편성해 시군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지원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도는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축산농가에서도 폭염 대응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제26회 전북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 · 건축문화제 개최

사용승인 · 계획 2개 부문 공모… 10월 27~28일 접수

수상작은 11월 18~23일 건축문화제에서 시상 · 전시

쇼츠 영상 공모전 · 올림픽 유치 붐업 부스 등 시민 참여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6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공모를 시작하며,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 인재 및 작품 발굴에 나선다.

이번 공모는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북의 대표 건축 행사로, 도내 최고 권위의 건축상으로 평가받는다.

건축문화상 공모는 △사용승인 부문 △계획 부문으로 구성된다. 사용승인 부문은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며, 가설건축물이나 리모델링 사례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조경관리실태평가와 연계해 도시 녹지 공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도 함께 평가한다.

계획 부문은 전국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자유 주제의 건축계획 또는 기술계획 작품을 공모하며, 창의성과 실험성이 중점 평가된다.

젊은 건축가들의 상상력을 지역 건축문화에 더하는 기회로, 학생 부문 상금도 지난해 4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작품 접수는 10월 27~28일 도청 공연장 1층 로비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11월 5일 발표되며,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건축문화제' 기간 중 열릴 예정이다.

건축문화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 외에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건축문화제는 시상식 외에도 수상작 전시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진다.

올해 주제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창조적 비전을 제시하며, 건축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로, 전북의 미래를 건축을 통해 조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쇼츠 영상 공모전'도 함께 열리며, 짧고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붐업 특별부스'도 함께 운영돼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를 포함한 도내 5개 건축 관련 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마련된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의 건축이 우리 삶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ESG 슬로건 공모 심사위원회을 열고 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ESG 대표 슬로건 선정

최우수작 '공감을 통한 평등, 전북여성가족재단은 YES G!'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ESG 대표 슬로건으로 '공감을 통한 평등, 전북여성가족재단은 YES G!'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 직원 대상 공모를 진행, 총 21건의 응모작이 경합을 벌였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건, 우수작 1건, 장려작 1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공감을 통한 평등, 전북여성가족재단은 YES G!'는 긍정을 뜻하는 'YES'와 'ESG'를 결합해 ESG 경영에 대한 진취적인 태도를 표현했다. 또한 재단의 핵심 가치인 '공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ESG 가치를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향후 선정된 슬로건을 재단 홈페이지, SNS, 각종 홍보물 및 공식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해 ESG 경영 비전을 대외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전북현대 경기 연계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전북현대와 강원FC의 홈경기에 맞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슛!-골인(Goal-in) 이벤트'를 열고, 도민과 함께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자치도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도민과 축구팬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경기장 외부 광장에 마련된 특설 골대에서는 관람객들이 직접 공을 차 넣는 '슛!-골인 챌린지'가 펼쳐져 많은 호응을 얻었고, 올림픽 관련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전북현대와 강원FC의 홈경기에 맞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슛!-골인(Goal-in) 이벤트'를 열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행사장 곳곳에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엠블럼과 슬로건이 담긴 홍보물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끌어냈으며, 참여자들은 올림픽 유치에 대한 기대감을 체험 속에서 공유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치 활동이 생활 속 공감대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식의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홍보활동에 참여한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스포츠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치 활동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전북현대 홈경기와 같은 대중 밀착형 콘텐츠와 연계한 유치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에도 전북현대 홈경기 일정에 맞춰 2차, 3차 유치 이벤트를 이어갈 예정이며, '레츠 무브(Let's Move)' 캠페인과 연계한 SNS 참여형 이벤트, '올림픽 데이런(Day Run)' 등 다양한 스포츠·문화 행사와 협업해 유치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 위촉

내달부터 활동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 19명을 위촉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은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실제 도민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반영하여 도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모니터링단원은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 의견 제시,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위원 및 주민 체감도 조사 참여, △우수사례 SNS 홍보 등 적극행정 관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올해 모니터링단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참여단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됐다.

20대부터 70대까지 도내 각 지역에 거주지를 둔 단원으로 폭넓게 구성된 만큼,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민 모니터링단의 임기는 제10기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활동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말까지이며, 전북자치도는 이들에게 위촉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기업 환경관리역량, 전북자치도 마중물 행정으로 '쑥쑥'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최근 2년 평균대비 위반율 29.3% ↓

기술지원 · 방지시설 확대 등 영세사업장 환경관리 역량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의 환경관리 자율역량을 높이고 도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형 환경행정'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행한 '사전예고제'를 비롯한 주요 환경관리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올해 △사전예고제 운영 △환경기술지원 △방지시설 설치지원 △공무원 및 기술인 직무교육 등 4대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도·시군·사업장이 함께 상생하는 실효성 높은 환경관리 기반을 다져왔다.

도에 따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점검에 '사전예고제'를 적용한 결과, 최근 2년 상반기 평균 대비 위반율이 29.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803개소 중 위반사업장은 56개소(위반율 7.0%)로, 2023년 10.2%, 2024년 9.6%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사전예고제는 정기점검에 앞서 점검항목과 주요 위반사례를 사업장에 미리 안내해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해 2,012개소가 점검대상이며, 도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점검도 병행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38개소였던 지원대상은 올해 42개소로 증가했으며, 환경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기술 자문, 법령 상담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노후·신규 방지시설 지원 사업도 확대됐다. 지난해 164개소에서 올해는 299개소로 82.3% 증가했으며, 총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병행했다. 지난 4월 도내 시군 공무원 38명과 산업단지 환경기술인 3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인허가 절차, 방지시설 운영법, 주요 위반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는 이 같은 교육을 오는 9월에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관리는 행정의 강압적인 통제가 아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환경관리를 위해 정례 간담회와 실무 교육,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기업과 상생하는 환경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후보자 대상 공직기강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신규 채용 소방공무원 후보자 82명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공직가치와 청렴의식을 심어주고, 공직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 △공직사회 부패 사례와 예방 방안 △소방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현실적인 윤리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본부는 신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함께 체계적인 현장 실습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이만호 기자